

11-29-2009 주간 메시지

성서: 시편 21:1-13

본문: 고린도후서 12:1-10

본문: 그리스도의 능력

능력이란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본다. 물질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물질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능력은 세상에서의 능력과 다른 것이다. 일찌기 포로생활로부터 귀환하여 지난 날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외쳤다: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느 8: 10b)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다는 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슬픈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하여 계속 증거했다. 그는 감옥 속에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빌 3:1,4:4,10; 살전 5:16).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2-13)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는지 간증하고 있다. 그가 사탄의 사자가 준 가시가 그의 육체 가운데 있어 고통받고 있을 때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허락하신 뜻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9 절)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힘이 없어질 때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때부터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약함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당하면 비관하여 자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기뻐한다고 증거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10 절)

그의 고백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어떻게 약할 때에 강할 수가 있겠는가? 왜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역경들을 기뻐했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다섯 가지 고난들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증거한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다섯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증거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경들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주는 능력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생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며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 더불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는 증거했다 (요일 2:16-17).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잠깐 주는 육신적인 능력은 세상과 더불어 끝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란 말씀인 것이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 16:33)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 자들(요일 5:4-5)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는 고백을 하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자!

11-29-2009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21:1-13

Main scripture: 2Corinthians 12:1-10

Subject: **Strength of Christ**

“**Strength**” means a kind of power that someone has superiority to others in many ways. People envy the men of power, and exalt them. The strength so called in the world symbolizes the power related to something carnal. But the strength in the kingdom of God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world. Nehemiah cried out to the people of Israel that were mourning remembering the captivity in the past:

“For this day is holy unto our LORD: neither be ye sorry;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Neh 8:10b)

He addressed them to have strength through the joy of the LORD. In other word, it is the true joy when they seek the LORD in hope even in the midst of sorrow.

Apostle Paul testified of such joy continually. Therefore he could encourage the saints sending the epistles to them from the jail:

“¹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to me indeed is not grievous, but for you it is safe.... ⁴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¹⁰But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that now at the last your care of me hath flourished again; wherein ye were also careful, but ye lacked opportunity...¹⁶Rejoice evermore.”(Phil 3:1,4;4,10;1Thes 5:16)

He testified of his strength that could give him the power of joy in all circumstances through the strength of Christ:

“¹²I know both how to be abased, and I know how to abound: everywhere and in all things I am instructed both to be full and to be hungry, both to abound and to suffer need. ¹³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me.”(Phil 4:12-13)

Through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made testimony of how he received the strength of Christ. When he was suffering because of a thorn in the flesh, the messenger of Satan, and he besought the Lord three times, that it might depart from him. The Lord spoke to him clearly about the reason why the Lord allowed him to keep it in his flesh:

“⁹And he said un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v9)

In other word, when the strength in the flesh is weakening, the spiritual power that is the strength of Christ is made perfect in the weakness.

Understanding such a great truth, he rejoiced in his infirmities, so that he was filled with the strength of Christ.

Understanding this truth, he received the supernatural power of God that could overcome all kinds of infirmities through the strength of Christ. Actually he testified of his joy even in the miserable situation when normal people may feel like committing suicide:

“¹⁰Therefore I take pleasure in infirmities, in reproaches, in necessities, in persecutions, in distresses for Christ's sake: for when I am weak, then am I strong.”(v10)

His testimony must be foolish unto the eyes of carnal people. How can anyone be strong in infirmities? Why he rejoiced of all kinds of afflictions through Christ? In other word, he testified of five kinds of sufferings followed by the ministries of Christ. At the same time, it is only possible to overcome such things only through the strength of Christ. He could be able to rejoice of such sufferings, for in the midst of those things he received the strength of Christ.

The strength from the world is visible carnal things. All things in the world can be summarized as the lust of flesh, the lust of eyes, and the pride of life. Such things shall pass away, but he that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1John 2:16-17). In other word, the carnal strength that is temporal shall be end with the world, but the one that can overcome all kinds of afflictions shall abide eternally with the Lord. Anyway, the world where we live is filled with sufferings; the real issue is whether we overcome them or not. Lord Jesus spoke to his disciples before he departed them:

“³³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in me ye might have peace. In the world ye sha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Yes! They that overcome the world by faith can have peace in the midst of any trouble (1John 5:4-5) Let us receive the strength of Christ through our infirmities, reproaches, necessities, persecutions, and distresses for the sake of Christ! Let us also be able to make victorious confession as Apostle Paul saying, **“When I am weak, then am I strong!”**